

공무원 시험도 5월 이후로 연기

서울시, 9급 공채 필기시험 연기
5급공채·지역인재7급 등 4월이후
전국 341곳 18만5203명 응시예정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 시험이 연기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9급 공채 선발 필기시험을 5월 이후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4월 이후로 미뤘다.

인사처는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 시험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시험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수험생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응시 인원, 시험장 규모, 시험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히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37.2대 1의 경

쟁률을 기록한 9급 공채 응시인원은 18만5203명, 시험장은 341곳이다. 이 가운데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경북에서는 시험장 41곳에서 2만1616명이 시험을 볼 계획이었다.

시험 관리·감독 등을 하는 시험 종사자는 전국적으로는 2만3000명가량, 대구·경북에서는 28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험 일정을 재조정, 5월 이후에 필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시험 연기에 대해 수험생에게 문자로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황서중 인사처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깊이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한 응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1일 예정된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필기시험을 4월 중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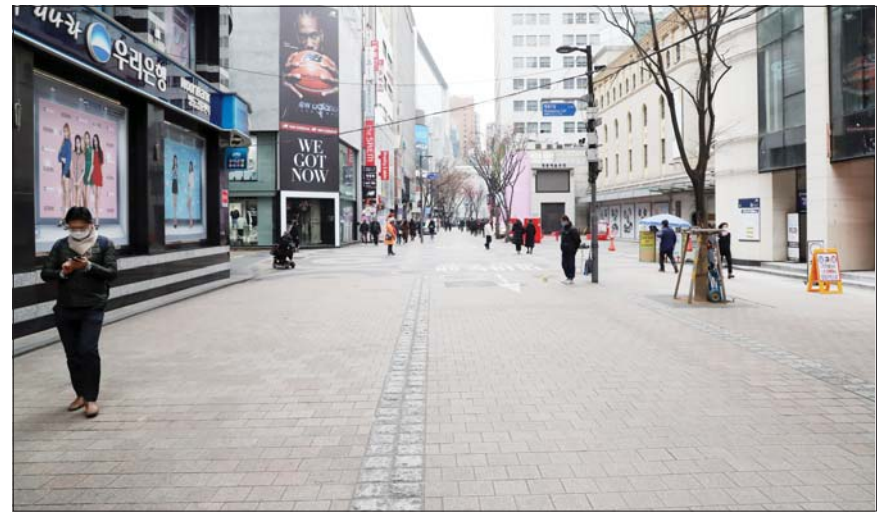
이날 시는 3월 21일에 치를 예정이던 2020년 제1회 공개경쟁·경력경쟁 필기시험을 4월로 연기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현 상황과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모든 수험생이 서울에 모여 응시하는 점을 감안해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필기시험 날짜를 이달 중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코로나19 여파... 명동마저 한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3일 오후임에도 평소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던 명동거리가 텅 비어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3일 오후임에도 평소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던 명동거리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수도요금 체납 징수율 91%

작년 체납액 160억 중 145억 징수
2014년부터 장기·고액 특별관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작년에 수도요금 체납액 160억원 중 145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 작년 체납 징수율은 90.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건수 기준으로는 145만9911건 중 47%인 68만9402건이 해결됐다.

서울시의 2015~2019년 연평균 수도요금 체납액은 평균 167억원이었고, 금액 기준 평균 체납 징수율은 88%였다. 시는 2014년 3월부터 체납 징수팀을 운영하며 장기·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해 왔다.

서울시의 작년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사례 중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새 주인과 옛 주인이 서로

금납부를 미뤄 자그마치 1억원이 밀려 있던 것을 작년 4월에 새 주인으로부터 받아낸 경우가 있다.

시는 재산 압류를 예고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계약서상 제세금 등을 내게 돼 있던 새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는 단일 건수로는 연간 최고 체납 징수 기록이었다.

이 밖에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노후 아파트에서 관리비 미납 등으로 2017년부터 2년간 8000만원의 수도요금이 밀려 있던 사례와 행정처분이 예고될 때마다 밀린 요금 중 일부만 내고 상습적으로 900여만원의 요금을 체납해 온 사우나의 사례도 작년에 해결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상수도 100만원 이상의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가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제독차 12대, 병력 411명

서울시 안전관리위, 軍 협력 요청
도로세척, 1500㎡ 범위 지역 소독
자치구 신청받아 긴급 방역



K-10 제독차. /서울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과 협력해 긴급방역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달 24일 긴급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수도방위사령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보유한 K-10 제독차량 12대와 411명의 병력이 긴급 투입된다.

제독차량의 경우 한번에 탑재 가능한 소독액은 최대 2500ℓ다. 도로 세척 및 1500㎡ 범위의 지역 소독이 가능한 규모다.

시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역사, 공원 등과 같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 확진자 방문장소 등에 대한 방역 장비와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지금 은 일상적 방역망을 총 가동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불법대부업 상시모니터링으로 14억 피해 구제

서울시, 작년 532개 대부업 단속

서울시는 대부금융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을 통해 불법대부업을 연중 내내 단속 중이며 작년에는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14억3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3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진행해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수사뢰 81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불법광고 모니

터링을 통해 약 2000건의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

시는 올해도 불법대부업 단속을 상시로 벌이면서 행정처분 중심 사후감독 대신 사전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또 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 전후에는 전통시장 인근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히 최근 단속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 미수검업체에 대해 우선해서 현장단속을 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아이돌봄 공백 최소화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키움센터에서 저녁 6시까지 긴급 돌봄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부 센터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된다.

현재 서울시내 우리동네 키움센터 61곳과 지역아동센터 435곳 등이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전체 인원 대비 15%(키움센터 177명·지역아동센터 1762명)가 긴급 돌봄

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들은 지난달 25일 일제히 휴원에 들어갔으나,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긴급돌봄을 제공 중이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방과 후·방학 중 초·중·고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다.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놀이와 쉼이 있는 돌봄 공간이다. 현재 6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40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급식도 제공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미등원 아동에 대해서도 도시락 배달 등의 형태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육자의 감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종사자와 돌봄 아동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 자제와 출입대장 관리, 감염관리 전담 직원 지정 등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 돌봄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 예약도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차에서 신속검사... ‘드라이브 스루’ 운영

경기도는 차를 타고 이동하며 신속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승차 검사) 선별진료센터’를 빠르면 이번 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50억원의 재관리기금과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수원월드컵경기장(P4 주차장)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 등 남·북부 1곳씩 2곳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센터를 설치하고 감염병 확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 연수구 선학체육관 주차장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의심 환자 확인과 문진, 진료 등 검체 채취, 안내문 및 약품 배포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차량 탑승 상태에서 이뤄진다. /경기=김현정 기자